

지역 소식통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대학중점연구 콜로키움 개최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원장 김도종 총장)은 <근대문명 수용과정에 나타난 한국종교의 공공성 재구축>이라는 대학중점연구 아젠다 수행을 위한 제4회 콜로키움을 22일 오후 3시 교학대학 4층 시청각실에서 개최한다.

하승우 녹색당 공동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초청된 이번 콜로키움은 한국 공공성의 후퇴와 종교적 공공성의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현재 한국에서의 공공성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종교에서 공공성의 가능성에 대해 그간의 실천적 경험을 제시한다.

하승우 위원장은 녹색당 공동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환경운동과 풀뿌리자치, 비폭력 평화 및 인권운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풀뿌리 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과 맹맹책 협동조합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은 대학중점 연구 사업을 위해 역사학·종교학·철학·경제학·정치학 등 다양한 전공을 지닌 연구자들로 연구팀을 구성해 근대 한국종교의 근대문명 수용과 응전을 파악하고, 문명의 대전환기에 근대 한국종교 어려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으며, 한국종교와 문명에 대한 미래지향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온선=장양원기자

군산시, 2017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군산시가 22일부터 28일까지 2017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실업계층에 안정적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업보호계층의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4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며, 3개 유형 23개 사업(주민·여권 신청·민원도우미 등)에서 40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 자격은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인 근로능력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고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사람이다.

특히 청년층(만18~34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구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적합대상사업은 선별지원 범위 내에서 우선 선별된다.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건강보험증, 신분증 등을 지참해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온선=문정곤기자

군산시, 실뱀장어 불법조업 단속

유관기관 합동 불법어구 근절 위해 무허가 어선 등 행정대집행 실시

군산시가 실뱀장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 및 행정대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금강 하구둑과 비릉항 사이 해상에서 실뱀장어 조업 성행에 따른 불법정치방어구가 확산되고, 이는 군산·서천 어업인들 간 어장 선점으로 어여져 어업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군산시는 불법어구 근절을 위해 무허가 어선(어구) 불법어업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군산해경, 군산수수

청 등과 합동으로 실뱀장어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6일 군산수수 대회의실에서 각당, 실뱀장어업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어업인들은 “무허가 실뱀장어 조업자는 생계형 어업인이 대부분으로 단속 시, 항로에 지장이 되지 않는 쪽으로 유연하게 단속해 줄 것”과 “타 시·군의 불법어구(각망) 또한 강력하게 단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온선=문정곤기자

한국서부발전 군산발전본부

침체된 지역 경기활성화 위해 앞장

조선 기자재업체와 간담회… 다각적 지원방안 추진 키로

한국서부발전 군산발전본부(본부장 최수현)가 경기활성화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침체된 군산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군산발전본부는 ‘군산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5일 개최한 조선 기자재업체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군산발전본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하는 한편 앞으로 조선 기자재업체의 발전플랜트 시장 구출을 위한 구매·홍보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품 홍보 마케팅사업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회사 홍보용으로 쓰는 기념품을 지역 특산품으로 대체 구매하고, 구내식당 음식재료도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직원들의 급여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해 지원하고 있다.

최수현 본부장은 “지역사회가 어려



움에 부닥친 혐설을 직시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며 “노사가 한마음이 되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발전본부는 매년 어너지 취약세대를 위한 전기설비 개보수공

/온선=문정곤기자

익산시, 춘포 학연~익산천 제방간 도로확포장공사 착공

익산시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길이 740m를 폭 8m로 확·포장하는 ‘춘포 학연~익산천 제방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이달 착공했다고 밝혔다.

이 도로는 춘포면 학연마을에서 임석마을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다. 도

시 관계자는 “춘포 학연~익산천 제방간 도로가 개통되면 학연마을과 임석마을 인근 지역주민들의 통행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지역 농산물이 원활하게 유통되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온선=장양원기자

원광대 의과대학 박병림 교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선출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박병림 교수(진강) 및 무허가어선에 대한 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다”며 “어업인들이 최대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속 및 행정대집행에 있어서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협의를 거치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행정대집행에 관한 자체한 사항은 군산시 해양수산과 자원관리팀(☎ 454-20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온선=문정곤기자

로서 학술적 발전에 협력한 업적이 있어야하며, 그동안의 연구업적을 평가해 선출된다.

박병림 교수는 1978년 전남대 의과대학 졸업 후 원광대 의과대학에서 교육에 전념하면서 국내외 학술지에 2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특히 출판 등 꾸준히 학술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생리학 분야 중 전정기관의 생리에 대한 기초 연구 수행을 비롯해 진단용 장치 및 치료를 위한 자극 장치 등을 개발하기도 했으며, 어지럼증과 관련한 전정기관과 전정 중추에 대한 기초 연구로 해당 임상 연구 발전에 기여했다.

한편 박병림 교수는 원광대 의과대학장과 동서보완의학대학원장, 대한평생의학회장, 대한생리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온선=장양원기자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퍸스 - 익산경찰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교육·취업 위한 업무협약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퍸스와 익산경찰서는 지난 20일 익산경찰서 서장실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교육 및 취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교육·인력·시설 등의 교류와 공동의 협력을 통해 상호 진흥과 익산지역의 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익산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 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이들의 취업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으로써 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익산경찰서는 관내에서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에게 한국폴리텍대학의 프로그램을

/온선=장양원기자

익산시, 전국체전 성공개최 유관기관 업무관련 회의

익산시가 2018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해 21일 오후 시청 홍보관에서 유관기관 업무관련 회의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익산경찰서, 익산교육지원청, 익산소방서, 익산시체육회 등 전국체전 실무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각 유관기관은 전국체전 준비와 관련해 기관단체별 업무추진에 따른 체전홍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기관·단체별 업무분담, 대내·외적 홍보 등 분야별로 체전 준비 단계부터 업무협의와 정보 공유를 하며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기로 했다.

김성도 전국체전 담당관은 “앞으로 전국체전 업무 추진과 관련해 업무관련 회의를 수시로 열어 성공체전의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온선=장양원기자

